

사회

# 특하면 휴대전화 위치정보 조회

### 대부분 연락 두절때 요청... 긴급구조 1%뿐

### 광주소방본부 818건... 작년보다 19% 증가

휴대전화 위치정보 조회요청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나 조난 등 위급 상황에 대처한다는 예초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달리 단순한 연락두절 때 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위급상황에서의 조회요청이 전체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 조회요청 남발로 인해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 실제 긴급 출동 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5일 "올해 4월까지 광주지역 휴대전화 위치정보

조회요청 건수는 8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8건(18.6%)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추적이 불가능한 138건을 제외한 680건 중 실종 등 연락두절이 332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 신변비관이나 가정불화에 의한 자살기도 78건, 치매 등 정신질환자, 휴대전화 SOS문자, 약물복용 순이었다. 특히 실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조난은 5건으로 전체의 약 1%밖에 되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20대 미만의 청소년이 216건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20대 106건, 30대, 40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모두 실종에 의한 연락두절이 남성 147건, 여성 185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광주지역 휴대전화 위치정보 조회 요청건수는 2369건으로, 지난해 2009년 1984건에 비해 19.4% 늘어나는 등 요청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소방본부는 물론 각 소방서의 업무 하중도 커지고 있다.

위치정보 조회는 소방대원들이 휴대전화 기지국을 중심으로 반경 1~5km의 넓은 범위를 일일이 수색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에도 지장을 받고 있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산에서의 조난 등 급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위치추적이 도입되었으나 최근에는 그 취지에서 어긋난 실종 등 단순 연락두절 상황에서의 요청이 늘어 정작 화재나 교통사고 등의 각종 신고 시 인력부족으로 인해 출동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위치정보 조회 요청 자제를 당부했다.

한편 휴대전화 위치정보 조회 서비스는 자살 기도나 조난, 약물중독 등 급박한 상황에서만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오남용을 막기 위해 요청자격을 배우자와 2촌 이내의 친척이나 후견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어린이날인 5일 오후 1시 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원당산 공원에서 불이나 화염이 치솟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긴급 대피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어린이날 도심 공원 불 임야 0.5ha 태워

5일 오후 3시30분께 합평근 나산면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0.3ha를 태우고 1시간여만에 진화됐다. 불이 나자 공원에서 놀고 있던 어린이 등 100여명이 대피했으며, 산림청 헬기 1대, 인원 100여명이 동원돼 진화 작업을 벌였다.

당국은 어린이날을 맞아 공원을 찾은 누군가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원당산 공원에서 불이 나 임야 0.2ha를 태우고 1시간여만에 진화됐다. 불이 나자 공원에서 놀고 있던 어린이 등 100여명이 대피했으며, 산림청 헬기 1대, 인원 100여명이 동원돼 진화 작업을 벌였다.

당국은 어린이날을 맞아 공원을 찾은 누군가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당국은 어린이날을 맞아 공원을 찾은 누군가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비위 폭로 협박 거액 뜯은 부산저축은행 전 직원 영장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5일 이 은행 그룹 대주주와 주요 임원의 비위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로 최

모(여)씨 등 부산저축은행 퇴직 직원 4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 등은 몇 해 전부터 최근까지 순차적으로 퇴직했으며, 퇴직 시기를 전후해 부산저축은행 임원들을 상대로 "알고 있는 비위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뒤 임박한 대가로 5억 원 이상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약골 체력' 경찰관 되기 어려워진다

### 경찰청, 올 하반기 채용부터 필기 축소 체력 비중은 확대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경찰관 채용 시험에서 필기시험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체력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채용시험에서 필기 65%, 체력과 적성, 면접 각 10%, 가산점 5% 등으로 시험별 배점비율을 정해 시행해 왔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필기를 50%로 낮추고 체력은 25%로 늘린다. 적성검사는 따로 점수를 매기지 않고 감소분 10%를 면접시험에 포함하면서 적성검사 결과를 면접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가산점 5%는 그대로 유지한다.

체력검사 종목도 현행 100m 달리

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손으로 쥐는 힘), 제자리달리뛰기 등 4종목에서 제자리달리뛰기를 빼고 팔굽혀 펴기와 1.200m 달리기를 도입해 5종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면접에서는 수험생의 인성을 효과적으로 검증하고자 채용 심사관과 채용심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사전 적격성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올해 하반기에 순경 공채뿐만 아니라 전의경, 101경비단 요원, 정보통신, 사이버수사요원, 외사요원, 피해자 심리상담사 등 각종 특채까지 합해 1600여명을 뽑는다.

한편 경찰청은 현행 경찰공무원법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으로 정해진 임용 결정 사유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일부 범죄에 한해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연합뉴스

## 어린이 잔치야, 성인 행사야

어린이날에 울려 퍼지는 밝고 경쾌한 동요는 옛 이야기가 된 것일까. 5일 어린이날을 맞아 광주의 한 아동센터협의회가 개최한 행사장을 성인들이 즐기는 트로트와 댄스음악이 점령해 씩씩함을 남겼다.

이날 남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협의회 산하 31개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초등학생 등 500여 명을 광

특히 이들 노래가 끝난 뒤에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라는 가사의 유명 트로트 곡이 이어졌다. 성인들이 모이는 행사라면 모를까 어린이날과는 썩 어울리지 않는 노래들로 행사가 채워진 것.

행사에 참여한 한 초등학생도 5학년 어린이는 "귀도 아프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 남구아동센터협, 어린이날 운동회

### 동요 대신 트로트·댄스음악 '씽씽'

남구아동센터협, 어린이날 운동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축사 등 개회식이 끝나자 행사가 열린 중학교 강당에는 대형 스피커를 통해 한 여성 가수가 부른 트로트곡이 흘러나왔다. 어린이들은 트로트 음악에 맞춰 율동을 했다.

이후 기차놀이 등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된 뒤에도 스피커에서는 귀가 먹먹해질 정도의 크기로 걸그룹 카라의 '미스터', 오렌지 카라멜의 '마법소녀' 등 주로 젊은 연인들의 사랑을 주제로 한 댄스음악이 등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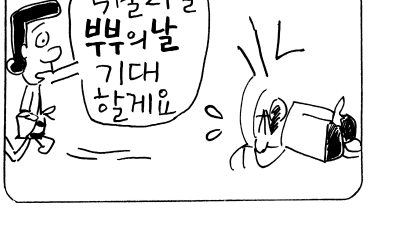
다. 구경을 나온 주민 이모(여·52)씨 역시 "어린이날인 만큼 트로트나 댄스음악이 아닌 동요를 틀어줬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아쉬워 했다.

이날 행사는 남구아동센터협의회가 주최하고 진행은 전문 이벤트 대행 업체가 맡으면서 자체적으로 노래를 선곡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아동센터 협의회 관계자는 "전체적인 행사의 틀에 조정을 맞추다 보니 미처 노래까지는 신경쓰지 못했던 것 같다"면서 "차후 행사에는 어린이들을 위해 세심하게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나원침 (8308) 김종두



### 박권섭 전 경주소방본부장

### 실종 136일만에 시신 발견

홍도 관광에 나섰다가 실종된 박권섭(59) 전 경주소방본부장의 시신이 실종 136일 만에 발견됐다.

5일 전남도 소방본부와 목포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40분께 신안군 흑산면 홍도 양산봉 아래 해안가 인근 계곡에서 등산객 이모(50)씨가 박씨의 시신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해 12월 18일 홍도를 찾은 박씨는 아침 등산을 나간 뒤 다음날 휴대전화로 가족과 119에 계곡에서 미끄러져 허리를 다쳤다고 말하고 나서 소식이 끊겼다.

경찰은 시신의 상태와 당시 상황으로 미루 박씨가 실종사한 것으로 보고 사경을 마무리했다. 소방간부 후보 1기생인 박씨는 2004년부터 1년여간 경주소방본부장을 지냈고 퇴임 후 (사)한국소방공사협회 부회장으로 재직하다 변을 당했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 톰살롱 일리더 연예인 아내 시신 도용

○...부산지검 형사1부(진경준 부장검사)는 5일 남성 성유오 '원투'의 송호범씨 아내 백승혜씨의 비키니 사진을 호객용 전단에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톰살롱 창업 이모(30)씨와 출판업자 김모(28)씨를 불구속 기소.

○이씨 등은 지난해 12월 초부터 지난 1월 중순까지 백씨의 비키니 사진 2장을 넣은 톰살롱 호객용 전단을 부산 서면 일대 전신주와 벽 등에 무차별 부착한 혐의.

○경찰은 "문제의 전단에 이름이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들이 유명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다 마치 백씨가 해당 유출업소에서 일하는 종업원인 것 같은 인상을 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

/연합뉴스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 7급 공무원 시험 [최강직] 최다 합격! 최강 퍼펙트 강좌!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학습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리보십시오

<b>7급 종합반 (이론)</b> 행정, 세무, 경찰, 교육행정, 교정직, 기술직 강의시간: 09:00 - 18:00 (2개월 완성)	<b>9급 종합반 (이론)</b> 행정, 세무, 경찰, 교육행정, 교정직, 사회복지, 농업기술직 강의시간: 08:00 - 17:00 (2개월 완성, 매일 학습수업 개강)	<b>9급 문제풀이</b> 행정직/세무직/교육행정직/검찰직/교정직 강의시간: 09:00 - 14:00 (4주 완성)	<b>법원/검찰직</b> 강의시간: 09:00 - 19:20 (2개월 완성) 노량진 유명강사진 총출동!	<b>9급 야간반</b> 강의시간: 19:00 - 22:00 (3개월 완성) 대학재학생, 직장인을 위한 공구원 합격 특강반	<b>농업직/기술직</b> 강의시간: 09:00 - 15:30 (2개월 완성) 4년 연속 농업직 전국최다합격자 배출!	<b>명품 "강력단과"</b> 영역, 국가, 행정, 행정, 국어, 한문, 회화, 경찰, 교정 강의시간: 15:30 - 18:30 (2개월 완성)	<b>합격률 소방직 (전문)</b> 시험장과 동일, 체력검정기 도입 강의시간: 09:00 - 17:00 (2개월 완성, 매일 학습수업 개강)
--	--	--	---	--	---	--	--

**최다수강생 최다합격률 최고의시설 최강교수진**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 한빛고시학원

**직영학원 김영편입학원 227-8088**  
**전남대 북구청 앞 (062) 252-0252**

**개강 1월**